

살기위한 죽음의 행렬...그러나, 더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항의 방문... 용산참사 다섯 유가족 전원 강제 연행 ▲ 지난 6월 4일, 용산참사 유가족 다섯분이 검찰이 감춘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고,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유가족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 3층으로 보내고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그런 뒤에 면회실에서 면담 요청한 것을 기다리겠다고 하여 면회실 앞에서 앉아 기다렸으나, 검찰은 경찰을 불러들여서 유가족들을 질질 끌어서 강제 연행하였다. 경찰은 진실공개를 요구하던 유가족들을 '공용 건조물 침입 죄'라는 범죄자 낙인을 찍어 조사한 후에야 풀어주었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중앙대, 경북대, 연세대 등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을 넘어, 대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식 소통부재가 87년 이후 어렵게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국정운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명박식 소통이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 준 것이, 바로 '용산참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례조차 못 치른, 용산참사 유가족들까지 연행하는 폐륜정권

살기위해 망루에 오른 다섯명의 철거민들을 무자비한 진압으로 살해한지 넉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

명박정권은 사과는 커녕 단 한차례의 추모제도 허가하지 않고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참사현장인 용산4구역의 살인개발을 시작하고, 전철연과 대책위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유가족까지도 연행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폐하고, 재판마저 방해하는 정치검찰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물리적 탄압에만 그치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짜맞추기 수사와 언론통제로 진실을 덮으려 하더니, 이제는 검찰을 통해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여 쪽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강제력 없는 명령으로 진실은폐의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러리스트이자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다섯 철거민 열사들은 아직까지도 차가운 냉동고에서 못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조차 못 치른 유가족들은 한 겨울부터 입기 시작한 상복을 한여름이 되도록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용산철거민 이상림, 양희성, 이성수, 한대성, 윤용현 열사, 택배노동자 박종태 열사, 노무현 전대통령, 그리고 통일운동가 강희남 목사님까지...이제 우리는 끝없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소수의 부자들과 재벌만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죽음의 행렬은 막지 못합니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아직 채 꽃도 피지 못한 학생들, 실업에 우는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로 밀려났다가 어느 날 실업자가 되는 노동자들,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담할 것을 강요당하는 민중들이 그 죽음의 대열 속에 있고, 그들의 죽음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저항하고, 저항하자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예우를 거부한 이 정권에 대한 분노는 다시 그만큼도 예우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도 모독까지 당해야 하는 가난한 철거민들과 노동자들, 민중들의 죽음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분노의 심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실감나게 표현할 때만이 그 권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의 저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것에 대한 저항, 억압에대한 저항, 착취에 대한 저항, 차별에 대한 저항, 그 길위에서 연대하여 전진할 때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은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장 슬픔 틈타 명도 강제집행



▲ 용역강패가 강제집행에 항의하는 문정현 신부님을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짓누르고 있다.

5월 29일 새벽 미사 중 기습 강행,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 등 폭행

온 국민이 추모와 애도에 젖어있던 29일, 용산4구역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용산4구역 건물에 대해 명도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참사당일 경찰과 용역들이 물포를 쏜 곳이자, 철거민을 위해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계신 문정현 신부님과 이강서 신부님이 기거하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두 분 신부님과 전철연 회원들이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물러갈 것을 권유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갇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강서 신부님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을 맞아 철거민 세입자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고 계셨지만, 저들은 미사 중에도 거리낌 없이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강패들은 문정현 신부님을 밀어 쓰러트리려고 깔고 앉아 부상을 입히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종교행사도 무시하고 신부님마저 폭행한 저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용역강패와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법을 강조하던 저들은 용역강패들이 신부님과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가만있고, 철거민들이 이에 항의하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통행권을 가로막은 용역강패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수방관이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인륜도 저버리며, 그것도 온 국민의 관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쏠린 틈을 타서 악행을 저지르다니, 재개발조합은 피도 눈물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이들의 배후 건설자본, 그리고 법원과 경찰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는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용산참사와 관련 구속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나, 검찰이 수사기록 1만 여 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공개 자료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시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

휘라인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진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거민과 경찰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건설재벌과 불법용역업체와 결탁하여 철거지역에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가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진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다 나중에 공개된 500쪽에 담긴 경찰 진술내용

경찰	진술 내용
 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씨 (2차 조서)	"검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을 망루 내부로 들여보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 후에야 시너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씨 (3차 조서)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으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로 쪽으로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진 것은 그 다음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습니다."
특공대 1제대장 신아무개씨 (4차 조서)	"이후 화재의 원인이 경찰 쪽에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도 있게 되자, 서로 경험한 내용을 대화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화재 원인이 농성자 쪽에 있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공대 2제대장 강아무개씨 (2차 조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 소화장비를 준비했지만, 이 사건처럼 시너 같은 다량의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공대원 안아무개씨	"망루 3층까지는 시위대가 망루 내부에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하는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신문 5.13]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의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합시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시다.
 - 유족돕기와 부상자 병원비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시다.
-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종화)